



혁신 Newspaper



발행처 : 항공교통센터 /우) 400-650/ 인천 중구 운서 인천공항우체국 사-26호 /전화 032-880-0224 /전송 032-889-2376 /http://acc.moct.go.kr



혁신탐사

아시아 국가혁신 키워드는 선도 · 스피드 · 차별화

- WEF 주최 동아시아 경제포럼 개최 -

혁신(Innovation)과 경쟁(Competitiveness)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지난 24~25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6회 동아시아
경제포럼에서는 아시아 국가의 혁신을 위한 기폭제로
'싱가포르 비책(Singapore Recipe)'이 소개됐다.

림 시옹관 싱가포르경제개발위원회 회장은 "선도
(Lead), 스피드(Speed), 차별화(Differentiation), 즉
LSD가 아시아 국가의 혁신을 북돋울 수 있는 핵심
키워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왜 '선도'인가. 항상 선두에 머무르려고
하는 욕구는 혁신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절박감을
더해준다는 지적이다. 남보다 앞서려는 절박감은 결국
또 다른 혁신을 낳는다.

두번째 혁신에 필요한 키워드는 '속도'. 기업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정부 기관들이 민간과 파트
너십으로 일할 때 기업의 경영활동 속도가 빨라진다고
림 회장은 강조했다.

정부가 기업활동의 발목에 잡는다면 아시아 국가의
혁신은 요원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기업이 가장 신속하게 '속도경영'을
할 수 있도록 기업경영의 파트너가 돼야 한다.

시장 니즈에 신속하게 기업이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는
리더십을 발휘해 기업의 아이디어가 최대한 빨리 시장에
표출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라는 지적이다.

세번째 혁신을 촉발시킬 수 있는 키워드는 차별화다.

다른 기업이 찾아내지 못한, 소수 고객층이 존재하는
틈새 영역을 찾아내 차별화했을 때 국가의 경쟁력을
떠받칠 수 있다. 틈새시장을 찾아내고 다른 기업이
보지 못한 시장을 만들어내려는 차별화 노력이 혁신을
촉발시키기 때문이다.

림 회장은 "싱가포르의 경험을 살펴볼 때 이 같은
세 가지 요소는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식 형성을
도와주는 법률을 통해 대학과 기업이 연구활동에 적극
나서도록 신뢰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었
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올해 열릴 세계지식포럼에 참석할 예정인
기요시 구로카와 일본 총리 과학고문은 "실리콘밸리와
MIT 캠퍼스와 같은 사례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샘솟는
혁신의 원천이 되고 있다"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상업
화해 제품과 서비스 형태로 시장에 내놓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짐 굿나잇 SAS 최고경영자도 "많은 기업이 캠퍼스
인근에 연구개발 시설을 설립해 시너지 효과를 냄으
로써 학교 주변이 혁신 클러스터로 변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항공소식

제9회 항공안전세미나 성황리 개최

건 설교통부 항공안전 본부가 주관하고 한국

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및 한국항공진흥협회가 주최하는 '제9회 항공안전 세미나'가 2007년 7월 6일(금)에 김포공항 스카이 시티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었다.



“항공안전세미나”는 1998년 첫 개최를 시작하여 현재 제9회까지 개최하였으며, 항공분야 관계자간 교류·협력을 증진하고 항공 운항·관제·안전·보안분야에서 종사하는 전문가와 실무자들이 연구주제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계기를 마련하여 항공안전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최신 항공 학술정보의 보급으로 항공사고를 예방하며 선진국 수준의 항공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항공분야 각계 전문가들이 차세대항법기술, 안전관리, 항공안전제도 개선 등 3개 부문으로 나누어 연구주제가 발표되었다.

ICAO 차세대 항법의 발전방향, 항공안전보고제도 개선방안, ICAO 항공안전평가와 우리의 대응방안, 항공영어 학습 및 평가시스템 발전방향 및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안전관리시스템 소개 등의 주제발표에 참가자들은 주의깊게 경청하고, 항공안전증진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세미나 관계자는 “항공안전세미나를 통해 항공 관련 여러 기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는 공동연구의 장을 갖게 되었으며, 항공 실무 전문가들의 연구성과와 현장에서의 애로 사항 등을 발표·토론하고 이에 대한 개선점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큰 의의가 있다” 고 밝혔다.

홍보 게시판 및 업무 일람표 제작·설치

항 공교통센터는 직원들의 참여 분위기 확산 및 직원 상호간 커뮤니케이션의 장을 마련하고 민원업무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우리 센터 홍보 게시판 및 업무일람표를 제작·설치하였다.

홍보 게시판은 2층 입구에 설치되어 있으며, 우리 센터의 주요동정, E-혁신, 동아리 나눔터, 축하코너 및 ATC Share 등으로 구성되어 각종 정보를 상호 교환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있다.



▶ 우리센터 홍보 게시판

각 과 사무실 입구에 설치된 업무 일람표는 담당자 사진과 맡은 업무를 기재하여 민원인들의 외부고객이 언제든지 담당자의 업무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홍보 게시판 및 업무 일람표 제작·설치로 우리 센터 업무 추진사항에 대해 관심을 증대시키고 상호 혁신활동을 공유함으로써 혁신의 내재화 및 생활화를 도모할 뿐만 아니라 민원인들의 외부 고객에게 민원 업무수행의 편의성을 제공하여 우리 센터의 대외 이미지 제고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산지방항공청 '공항안전 저해요인 신고센터' 운영

부 산지방항공청이 공항에서 근무하는 항공 분야 근무자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근무자 중심의 안전관리 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공항안전 저해요인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날로 늘어나는 외항사의 신규노선 개설과 저비용 항공사의 취항으로 인해 공항 내 이동지역(활주로, 유도로)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요인이 다양해짐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자 설치하는 것이다.

부항청은 이로 인해 항공기 운항에 지장을 주는 안전사고 발생 요인들을 공항 근무자가 미리 신고하여 개선함으로써 항공기 안전운항을 확보하고 더불어 관련업무 수행 시 불편 사항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항청 관계자는 “신고 된 각종 사항들을 분기별로 분석하여 관련업체에 배포한 후 개선 사항은 신고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신고센터 운영에 따른 운영 만족도에 대해서는 전화조사를 실시하여 미흡한 부분을 보완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공항안전 저해요인 신고는 부산지방항공청 홈페이지(<http://prao.moct.go.kr>)의 신설 코너에 하면 된다.

항공안전기술교육 초청 인원 38% 증원 한다

건 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개도국 항공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방향표지시설 교육과정에 당초 계획 13명보다 38%가 증원된 18명을 초청한다고 밝혔다.

※ 아시아(5개국), 중동(1개국), 아프리카(9개국) 및 중남미(3개국)

금년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이사국 및 항행위원 재선출이 있는 중요한 시점으로 기술교육 대폭 확대는 보다 많은 국가와 우호 협력관계를 맺고, 국제 항공사회를 리드해 나가는데 있어 좋은 기회를 제공하여 우리나라의 이사국 재선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ICAO에서도 개도국 항공발전에 대한 대한민국의 전폭적인 지원이 전세계 민항공 분야의 안전과 균형 있는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190개 회원국에 홍보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안전본부 신동춘 기획관은 “이번에 초청되는

국가중에는 ‘01~’06년까지 개도국 교육과정에 한 번도 초청을 받지 못한 토고 및 감비아 등 10개국이 처음으로 초청되는데, 첨단 항공기술을 널리 전파하고 관련 산업분야의 발전과 국가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개도국 교육훈련 실적 : 49개국 173명(’01-’06)

또한, 한국국제협력단 전주호 교육훈련2팀장은 “매년 개도국 교육훈련으로 약 180여개 과정에 2,500여명을 초청하는데, 항공분야와 같이 전세계적으로 호응이 좋고 참여도가 높은 경우는 드물다”면서, “외교 및 재정적인 측면에서 최대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번 선정된 개도국 항공종사자는 ‘07.8.16~9.5일까지 항공인력개발원에서 전방향표지시설의 기본원리 및 유지관리 기법 등 항공기술을 습득하고, 국내 제작사를 방문하여 첨단 제품의 제작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 된다.

※ 전방향표지시설(VOR : VHF Omni-directional Range)은 항공로 구성과 항공기의 이착륙에 사용되는 항행안전시설로서 우리나라는 25대, 전 세계적으로 2,500여대가 설치·운영 중

“여객기 바퀴가 빠져...” 중국공항서 황당사고

“비행기 바퀴가 빠지는 바람에...”

지 난 1일 중국 베이징수도국제공항에서 승객이 탑승 중이던 항공기의 앞바퀴가 빠지는 황당한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일어난 비행기는 베이징발 두바이행의 중국항공 941편. 오후 5시 30분 이륙예정이었던 항공기에서 돌연 앞바퀴가 빠지는 바람에 동체부분이 지면에 부딪혀 부상자가 발생했다.

여객기에 탑승중이던 한 승객은 “사고 직전에 갑자기 기체가 격렬하게 떨리더니 동체 앞부분이 지면으로 쓸렸다.”고 전했다.

또 다른 목격자는 “항공기에서 바퀴가 빠져나가면서 엔진부분에 충격이 가해져 항공 연료가 밖으로 흐르고 있었다.”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사고 후 공항측은 긴급히 현장을 봉쇄하고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Hello English

♣ 항공영어 구술능력 시험 대비 요령(7)

Task 9. Expressing an Opinion 1

- ◆ 문제가 듣기와 함께 시험지에 인쇄되어 있으므로 읽기 역시 잘 활용한다.
- ◆ 문제의 내용을 잘 이해한다.
- ◆ 문제를 듣고 생각을 정리하는 30초동안 답변의 핵심단어를 간단히 메모한다.
- ◆ 영어의 논리전개상 결론을 먼저 언급해야 한다.
- ◆ 결론을 먼저 제시하고 논리를 뒷받침하는 이유를 제시한다.
- ◆ 답변 마지막에 주제를 요약하고 자신의 의견을 덧붙이며 말을 맺는다.
- ◆ 꾸준히 반복 연습하여 유창성을 기른다.

① 예제문 ①

Directions: Listen to the following question. You have 30 seconds to prepare your answer, and 1 ½ minutes to respond.

Now, listen.

In a recent air accident, a passenger jet took off on a short runway intended for small airplanes, rather than the main runway. The airplane crashed into a hill near the end of the runway, killing most people on board. Some observers say that the crew were confused about which runway to use, and were not corrected by the tower controller who gave the take off clearance. In cases like this, do you think the controller on duty is responsible for the accident?

Now think about your answer(30'')

Now explain your opinion in as much detail as possible.

① 답변 ①

I don't think the air traffic controller who gave the clearance is liable for the accident. He gave the clearance to the pilot to take off on the appropriate runway. It's up to the pilot now to follow the instruction or clearance. If the flight crew were confused, they could have clarified with the controller. The controller could have helped prevent the accident but considering that he has other duties, he is not expected to keep on eye on all aircraft all the time.



▶ 꿈의 항공기(Dreamliner), B787



혁신으로 가는길

통계 '네비게이터' 를 만나다.

통계청이 지난 해 12월부터 대전광역시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고 있는 통계 네비게이터는 통계에 '네비게이터' 개념을 더한 획기적인 서비스다. 도로명, 주소, 상호 등을 이용하여 지도상에서 원하는 위치를 찾아낸 후 임의의 범위에 대해 근린생활권 통계를 활용할 수 있는 '이용자 맞춤형 통계지리정보 서비스'.

통계청이 서비스를 시작한 후 지금까지 통계정보의 제공 범위는 시.군.구, 읍.면, 동과 같은 행정구역이었다. 그러나 통계 네비게이터는 이러한 한계를 넘어 이용자가 원하는 위치에서 원하는 범위를 임의로 설정하여 통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 어떻게 만들어졌나?

통계 네비게이터는 전국 1,350만 거점과 320만 사업장에 대해 포인트 즉, 위치정보를 입력하고 이 위치정보와 센서스 개별 데이터를 연결한 공간 데이터베이스를 기본 인프라로 하고 있다.

전국을 도로, 하천 등 준항구적인 지형지물을 중심으로 32만 여개의 기초 단위구로 나누어 서비스의 가장 기초적인 구역으로 활용함으로써, 소지역에서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습을 비교하여 볼 수 있다. 기초단위구를 2~3개 정도 묶은 9만 여개의 집계구로 서비스되는데 이러한 서비스 체계는 개인 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서비스 범위인 집계구는 평균 1평방 킬로미터 크기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기존 통계제공 범위 중 가장 작은 읍면동을 30개 정도로 쪼갠 크기로 우리의 일상생활이 영위되는 근린생활권에서 통계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기존의 통계제공 경계인 행정구역에 얽매이지 않고 이용자가 원하는 구역을 정해 인구 및 가구, 주택, 사업체수와 이들 통계를 분석한 지수 등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이용자 중심의 혁신 서비스다.

●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

통계 네비게이터를 이용하려면 먼저 '찾아가기 서비스'를 통해 지도상에서 원하는 위치를 찾아가면 된다. 이때 도로명, 주소, 상호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원하는 위치를 찾은 후 범위를 정하고 '통계 보기'를 선택하면 해당 항목에 대한 통계 집계표와 그래프를 볼 수 있으며 여러 지역을 비교해 볼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된다.

2006년 말 대전광역시를 대상으로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 통계 네비게이터는 2007년 말, 서울특별시와 6대 광역시에 대해 본격 서비스되고, 2008년 말에는 전국 서비스가 실시된다.

● 누구에게 필요한가?

통계 네비게이터는 통계가 생활 도우미가 되어 생생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한다. 좋은 교육 문화 환경을 찾는 학생,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찾는 주부, 안락한 복지 환경을 찾는 고령층. 이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통계 네비게이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통계 네비게이터는 사업의 강력한 경쟁력으로 부각되고 있다. 금융업의 잠재고객, 우량고객 분석 및 리스크 관리. 유통서비스업의 고객 집중 및 분포도 분석 등 점포 관리, 마케팅업의 고객 특성과 지역 특성에 맞는 마케팅 전략 수립. 컨설팅업의 시장규모 추정과 같은 상권분석 등 강력하고 경쟁력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 세계적 수준의 모델, '통계 네비게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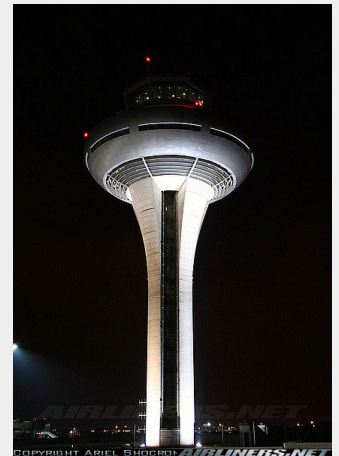
통계 네비게이터 시스템은 전국의 모든 거처와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공간 데이터베이스 기반으로 구축되어 있어 행정구역은 물론 기초단위구, 집계구 뿐만 아니라 어떤 경계와도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모든 국민에게 제공되는 집계구 단위 서비스뿐만 아니라 개별 주택 및 사업장 단위의 정밀한 분석을 필요로 하는 이용자에게는 주문을 받아 분석하여 제공하는 주문형 통계 서비스도 가능하다.

또한, 통계 네비게이터 서비스를 위해 구축된 기초단위구 등의 인프라를 국가 표준으로 제공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등 여러 이용자들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와 결합하여 사용하게 되면 커다란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다.

다양한 경계와의 정보 결합이 가능하고 정밀한 분석 서비스까지 제공할 수 있는 통계 네비게이터 시스템은 활용성 면에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지리 정보 모델로 평가되고 있다.

출처 : 행자부 혁신의 창 104호



▶ Madrid Tower(스페인)



독자님들의 소중한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항공교통센터에서는 혁신분위기 확산, 혁신관심도 제고 및 창의적인 혁신문화 정착을 위하여 『혁신Newspaper』를 매주 1회 발간·배포하고 있사오니, 혁신활동을 게재하시고 싶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혁신Newspaper』 발간 및 배포안내

- 발 간 : 주 1회(매주 화요일)
- 배 포 : CTNET, 우리센터 홈페이지, 구독자 전자우편 등
- 편집부 : 항공교통센터 공역과
- 전 화 : 032-880-0225 팩스 : 032-889-2376 E-mail : airspace@moct.go.kr

※ 본지의 내용은 우리 센터의 공식의견이 아닐 수 있습니다